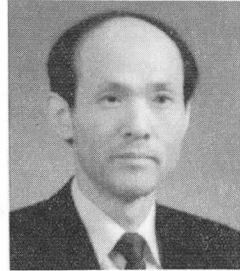


10월도 약세 지속예상



정 호 풍
(본회 지도부장)

• 폐모돈(따돈) 출하증가

민족의 대이동이 있었던 추석명절은 고속도로에 쓰레기를 산재시키고, 평소의 4~5배의 시간을 낭비하여 고향땅을 찾았지만, 옛날의 추억만이 더욱 아쉽게 느껴지는 것은 갑작스레 들이닥친 승용차들과 식어져간 인정만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마당 빨랫줄에 기저귀가 펼쳐있고 국민학교 운동장에서는 운동회의 만국기가 펄럭이는 모습들이, 언제부터 사라졌는지 논두렁에는 피농사 지은 곳이 많았다. 양축농가들은 공해 문제로 이웃 주민들이나 행정기관들의 눈치를 봐야 한다. 환경공해문제, 이는 실로 중차대한 지구가족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니 환경문제 앞에서는 그 무엇도 양보해야 하는 것이 현대산업들에게 주어진 크나 큰 과제거리로 등장하게 됨을 보면서 돼지의 따돈 도축상에도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근간 추석절에 대비하여 따돈 도축을 중단했던 관계로 갑자기 늘어나는 따돈의 도축기피현상은

작업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보다는 논피의 수요처가 없고, 부산물(폐기물)이 많이 나오므로 역시 폐기물 처치가 어렵다는 것이 일선 관계자들의 말이다. 바라기는 이렇게 늘어나는 따돈의 도축현상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사육조절 차원에서 야기된다면 하는 바람이다. 여하를 최근 인천, 대구 등지의 지방 도축장에 문의해보니 평소의 1.5~2배로 늘어난 현상이다.

• 돼지 보유두수 현상(6月)유지

8월의 사료생산량이 7월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3%정도 많이 생산됨을 본다. 사료별로 본다면, 어린돼지사료와 육성비육사료 공히 늘어났고, 모돈사료는 약간 줄어든 것이 특기할 만 하다. 그렇다고 해서, 모돈이 줄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적은 물량이다.

어찌 생각하면 폭염이 계속적으로 지속, 늦더위가 심한데서 오는 섭취율 감퇴현상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한편 육성돈(육성+

'92. 8월 배합사료 생산량

(단위: M/T)

구분	'92. 8 (A)	'92. 7 (B)	'91. 8 (C)	증 감(%)	
				A/B	A/C
갓 난 돼 지	7,312	6,818	7,248	7.2	0.9
젓 먹 이 돼 지	95,165	89,687	93,580	6.1	1.7
젓 뎀 돼 지	11,514	11,061	11,515	4.1	0
육 성 돈	149,233	142,914	120,997	4.4	23.3
비 육 돈 전 기	9,281	8,457	9,199	9.7	0.9
비 육 돈 후 기	4,237	4,228	2,548	0.2	66.3
임 신 돈	23,418	24,780	19,479	▲5.8	20.2
포 유 돈	41,217	41,926	39,902	▲1.7	3.3
후 보 종 돈	471	460	395	2.4	19.2
중 돈	17,111	18,227	19,520	▲6.5	▲14.1
특 수 사 료	10	12	49	▲20	▲490
소 계	358,969	348,570	324,432	3.0	10.6

서울 3개 도매시장 기준

	추석전	추석후	9월	10월				
				8월하순	9월상순	하순	상순	중순
지육단가 (원/g)	2,223	2,131	2,100 이하전망					
경매두수	7,608	6,471	6,500	7,000 이상	7,000 이상			
지육가	2,200							
육가	2,100							
가	2,000							
격	1,900							
경매두수	8,000							
	7,500							
	7,000							
	6,500							
	6,000							

가격의 상승요인과 하락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1), 찬바람 유통성수기	1) 수입쇠고기 방출 2) 출하물량 증가예상

비육전후기)은 7월의 155,599톤에 비하여 162,751톤 으로서 7.152톤(4.6%) 증가됨을 본다. 그러나 출하될 물량은 충분히 도사리고 있음이 입증되는 것이다.

• 가격전망 어둡다.

최근의 서울 3개 도매시장 경매두수는 7,000두를 웃돌고 있으며, 가격은 조금씩 치지는 것을 본다. 각종 경기가 침체된 상황이고 보니 먹자판은 80년대 얘기이고, 모임도 옛날처럼 흥청대지 못한다. 돼지 사육농가는 11만호 정도인데 앞으로 절반이상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이다. 이는 자동도태가 되어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수지가 안맞게 된다는 것이요, 국제 경쟁력을 따져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자면 기계화로 성력화 시키는 등 생산원가를 낮추는 길 밖에 없는데, 그 요인들은 구태여 열거할 필요도 없이 농가들이 귀가 따갑게 들어온 진부한 얘기들이다.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려운 것이며, 하루아침에 이룩되는 것이 아닌 문제가 아직도 산적해 있다고 보겠다.

요즈음 새끼돼지가 37,000원이다. 이것을 매입하여 내년봄에 수지를 맞출 수 있겠는가도 다시 한번 계산해 봄이 좋을 듯 싶다. 정치, 경제, 사회면 신문을 살펴볼때 모두가 어둡기만 하다. 그러나 울며 씨뿌리는 자는 웃음으로 결실을 본다고 하는 말을 되새기면서 열심히 살아야 하지 않을까? 